

부정적 양육태도와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김 영 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정적인 부모 양육태도와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 272명(남: 120명, 여: 152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 차폐는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차폐는 인터넷 중독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인터넷 중독을 14%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차폐를 포함시키면 전체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인터넷 중독을 11%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차폐가 포함되면 전체 변량의 16%를 설명하였다. 즉 부정적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차폐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덧붙였다.

주요어 : 부정적 양육태도, 차폐, 인터넷 중독

[†] 교신저자 : 김영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번지
Tel : 031-219-3293, E-mail : yh9848@ajou.ac.kr

한국정보화진흥원(2009)의 조사를 보면, 2007년 현재 인터넷 이용률은 만 6세 이상 인구 중 77.1%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2007년도 인터넷 중독자 실태조사(전국 9세-39세 5,500명 대상)에서는 전체 표본 중 9.1%가 인터넷 중독으로 나타났고, 그 중 성인은 6.5% 청소년은 14.4%로 청소년 중독 비율이 높았다. 청소년 중독자 가운데 특히 고등학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자 비율은 2008년도에는 약간 감소하여 전체 표본 중 8.8%(성인 중독률 6.3%, 청소년 중독률 14.3%)로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에 비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한국정보화진흥원, 2009)하고 있지만,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 조사한 인터넷 중독 상담 대상별 현황에서는 초등학교생 29,853명, 중학생 28,769명, 고등학생 9,224명으로 집계되어(한국정보화진흥원, 2008), 인터넷 중독이 가장 심각한 대상인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상담 건수가 가장 낮았다. 2008년 조사에서도 역시 고등학생이 가장 심각한 인터넷 중독 상태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상담을 받은 인원은 초등학교생(34,607명) 및 중학생(24,533명)에 비해 낮은 10,558명으로 집계되었다.

인터넷 중독이란 일반적으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고 인터넷상의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여 일상생활의 균형이 깨어지며 인터넷 이용자 및 주위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으로 지장을 받는 경우라고 정의된다(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Young(1997)은 인간이 현실에서 만족될 수 없는 욕구나 소망을 인터넷을 통해 충족하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승연과 이영호(2007)는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나 이에 따른 부정적

정서와 불쾌함에 대한 정도를 크게 느낄수록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인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이들은 불만족스러운 현실 혹은 부정적인 정서, 또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비율이 가장 높은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김성경, 2008)에서는 이들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조사되었는데, 물질스트레스(용돈에 대한 불만)와 부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동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 문제의 하나인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부모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의사소통, 양육태도, 애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2000)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수록, 컴퓨터 이용에 대해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심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고 김진희와 김경신(2006)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계원(2001)은 인터넷 중독 성향이 높은 청소년의 부모들은 무관심, 거부적, 적대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부모의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일수록(장윤옥, 정서린, 2005),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절, 규제, 엄격할수록(장원재, 2003)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 부모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와의 친밀감이 낮을수록 중독 경향이 높은 것(김경신, 김진희, 2003)으로 나타났다. 장재홍(2004)은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러한 불안정감으로부터 회피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쉽게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김연화와 정영숙(2005)은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경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회의와 외부 세계가 위협하다는 생각으로 인터넷상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영혜, 손현미, 양영옥, 조영란, 이내영, 2007)에서는 부모-자녀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중독 정도가 낮았고 모 애착정도가 부 애착정도보다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 정도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서 아동들에게 있어 인터넷 게임은 현실생활에서 경험한 소외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회피적 대처수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요섭, 김수경, 박은정(2008)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고 적대적일 때 인터넷 중독에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하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더 몰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현숙, 권윤희, 박경민(2007)도 부모와 교사의 통제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 위험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하면서 지나친 통제를 간섭과 잔소리로 인식하고 자율성이 침해되고 박탈된다고 느껴 오히려 인터넷으로 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인터넷 중독이 원인이나 결과라는 점에 대해서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2007)은 인터넷 중독과 부모-자녀간 상호관계성에 대해 자기회귀 교차지원 분석을 통해 효과검증을 하였는데, 인터넷 중독 성향으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정적으로 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 성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수진(2008)도 자기회귀 교차지원 효과검증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은 부모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변인들의 결과로써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중독 혹은 인터넷으로의 몰입은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외적인 단서들(적대, 무시, 통제, 거부, 낮은 애착, 소외감, 외로움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회피 수단이라고 본다는 점이다. 좀 더 상세히 검토해 보면, 부정적인 외적 단서들이 직접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이러한 단서들을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단서들이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들 단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지심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위협 자극이나 부정적인 정서 자극에 처했을 때 회피형 처리모드(avoidant processing mode)를 사용한다고 한다(Mathews, MacLeod, 2002). 최문기(2005)는 부정적인 자극을 의식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경우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처리를 억제한다고 하였다. 부정적인 자극들이 회피적·억제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의미는 본래 그 개인이 경험한 반응 혹은 지각과는 조금 동떨어진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도 된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즉 실제의 자기와 불일치한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자기도피, 자기은폐, 그리고 자기

은폐 등 몇몇 개념이 있다. 우선 자기도피는 Baumeister(1991)가 설명한 개념으로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괴적인 행동이나 자살에 이르는 정신적 도피과정을 의미한다. 정정숙과 권정혜(2003)의 연구에서는 자기도피가 게임중독을 가장 잘 예측해 주는 변인이었고 자기불일치 변인이 게임중독 예측량을 증가시킨다고 하면서 자기불일치 → 부정적 정서 → 자기로부터의 도피 →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후 권정혜(2005)는 인터넷 게임 중독경향 상승집단은 비중독 유지집단에 비해 자기도피 성향이 높고 적대적 부모-자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독 유지 집단과 감소 집단을 유의하게 변별하는 것이 자기도피 성향이며 이것은 인터넷 중독의 시간적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도피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게 되면 현실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와의 불일치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이 더욱 심화되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못하고 자기도피를 통해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인터넷 게임을 지속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경민과 장성숙(2004)은 자기도피에 대해 인터넷 중독자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기대에 모순을 겪게 되어 생겨날 수 있는 불안,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충동이 강해져서 감각적이고 구체적인 인터넷에 더욱 몰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한편 자신들의 개인적 정보를 감추려는 경향을 자기은폐라고 부른다. 자기은폐는 개인이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Larson & Chastain, 1990)이라고 정

의된다. Wegner와 Erber(1992)는 자기은폐는 자신의 비밀을 타인에게 의식적으로 감추려는 인지적 과정으로 정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은폐는 회피 및 불안 애착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Bartholomew & Horowitz, 1991; Vogel & Wester, 2003),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설명에 따르면 타인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성이 낮은 이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자기은폐성향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은폐는 불안정 성인 애착과 심리적 불편감을 매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Lopez & Gormely, 2002). 우리나라 연구에서 자기은폐는 심리내적 부적응의 원인인 동시에 잠재적 내담자의 가장 사적이고 괴로운 경험들에 대한 공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유영란, 이지연, 2006)으로 보고되었다.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자기도피는 실제의 자기와 불일치한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고, 자기은폐는 사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감추려는 경향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과 상반된 개념으로 자신의 내적 느낌, 태도, 신념 등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정도인 진정성(authenticity) (Sheldon, Ryan, Rawsthorne, & Hardi, 1997)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성과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 Gross와 John(1998)은 거절이나 사회적 거부 등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경향성이 높다고 하면서, 분노, 슬픔,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이를 경험하지 않은 척하며 자신의 정서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정서조절 전략, 즉 억제적 정서조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들은 진정한 내적 자기

를 표현하지 않으려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차폐(masking)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차폐는 정서표현성을 구성하는 위계 모델안에 포함된다. 즉 일반적 정서표현성 아래 정서표현 명확성, 긍정적 정서표현성, 부정적 정서표현성, 충동의 강도, 및 차폐 등 5가지 측면이 존재하고 긍정적/부정적 정서표현성과 충동의 강도가 핵심적 정서표현성과 관련된다고 하였다. 즉 정서표현성에는 표현과 관련된 3가지 측면(명확한/긍정적인/부정적인)과 강도(충동의 강도), 그리고 비표현성(차폐) 등 5가지가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이들의 연구에서 차폐는 성격의 5요인 중 높은 신경증, 낮은 우호성, 그리고 낮은 성실성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차폐가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자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울한 정서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차폐 척도를 번안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손재민(2005)의 연구에서 차폐는 정서조절방략 중 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동귀, 김혜영, 최해연(2008)의 연구에서 높은 차폐 행동은 부적응과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차폐(遮蔽)의 사전적 정의는 가려 막고 덮음이며 물리적으로 일정한 공간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러한 일을 말한다(네이버 국어사전, 2010). 일상생활에서 차폐는 흔히 소음을 차단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소음차폐기 등에 쓰이는 단어이다. 소음이란 큰소리,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음, 불쾌한 음과 같은 큰소리뿐 아니라 음량이 작더라도 사람의 욕구를 저해하는 음을 말하며, 시끄러운 소음은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과제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해로

운 결과를 가져온다(윤영화, 이흥재, 김상희, 김현택, 1997). Baron(1994)은 온도, 조명, 소음, 혼잡함 등의 물리적 환경이 작업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Poulton(1979)은 소음이 특정상황에서 신경내분비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고(윤영화 등, 1997에서 재인용). 앞에서 살펴본 심리학적 의미의 차폐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 차폐는 개인이 원치 않는 부정적인 외적 단서에 대한 차단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윤수연과 김은정(2005)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임의 청각적 생동감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게임에 몰입될 수 있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하고 우울과 공격성향이 높은 경우와 게임을 통해 현실도피나 게임 속에서 공격을 하기 위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게임 몰입 혹은 인터넷 중독은 외부의 부정적인 정서 단서를 차단하고 긍정적이고 즐거운 정서를 일으키는 자극 단서로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며 이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에 빠져든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고 실제 자기 정서와 다른 방식을 나타내는 정서조절 방략인 차폐가 부정적 양육태도 및 인터넷 중독과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 알아보고, 부정적 양육태도와 차폐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경민과 장성숙(2004)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집단에 차이가 나타났다(남>녀), 윤수연과 김은정(2005)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이 높았으며 이수진(2008)의 연구에서도 성

별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양육태도 및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불쾌한 혹은 부정적인 외적 단서로써 이들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차폐 그리고 인터넷 중독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성별,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차폐는 인터넷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3개 고등학교 1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결측치 28부를 제외한 27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남학생은 120명(44.1%), 여학생은 152명(55.9%)이었다.

연구도구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척도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척도는 아동이 자신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8개 문항 4점 척도(0=전혀 아니다, 3=자주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이민식(1997)

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숙, 1988; Grych & Fincham, 1992; Hudson, 1982; Schaefer, 1965)의 척도들을 선별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구성 요인은 적대적 태도(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적대적, 공격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 거부 및 무관심(자녀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요구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심리적 통제(부모가 자녀로부터 정서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거나 부모의 문제에 관여하도록 유도하고 부모의 심리적 상태 및 안녕에 책임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통제하는 것) 등 3개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민식(1997)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아버지용 .85, 어머니용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용 양육태도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93이었고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는 각각 .90(적대적 태도), .87(거부 및 무관심), .80(심리적 통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용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89였고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는 각각 .82(적대적 태도), .83(거부 및 무관심), .73(심리적 통제)으로 나타났다.

차폐 척도(Masking 또는 Inauthenticity)

차폐 척도는 개인의 자기-제시(self-presentation: Snyder, 1987)를 염려하여 진정한 내적 자기를 표현하지 않으려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Gross와 John(1998)이 개발한 것을 손재민(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는 '나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종종 매우 다른 사람처럼 행동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르다', '내가 즐겁지 않더라도 종종 즐거운 시

간을 보내고 있는 척한다' 등과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척도는 총 13문항 7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7=전적으로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Cronbach α 는 .74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중독 척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병구, 김동일, 김동민, 고영삼, 엄나래 (2008) 등이 개발한 'K-척도 청소년 자가진단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청소년용 인터넷 중독 척도가 청소년들이 간단하게 사용하기에 문항이 길고 그 문항의 내용이 실제로 와 닿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총 20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위험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중고교생의 경우 총점이 53점 이상, 초등학교생의 경우 총점이 46점 이상일 때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는 초등학교생의 경우 .89, 중학교생의 경우 .91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생 대상으로는 한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첫째, 남학생과 여학생이

인터넷 중독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두 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후 F 검증을 하였다. 또 각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별,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및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두 집단이 동질적인지 살펴보았다(표 1). Levene의 동질성 가정 검증 결과 유의확률이 .072로 나타나 두 집단은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두 집단이 인터넷 중독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 알아보기 위해 F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에 비해 인터넷 중독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14.90, p<.001$).

표 1.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점수의 동질성 검증

인터넷 중독			
Levene 통계량	df1	df2	p
3.27	1	270	.072

표 2.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의 차이 검증

변인	N	M	SD	F
남	120	32.27	10.22	14.90***
여	152	30.64	9.49	
전체	272	32.68	10.67	

*** $p<.001$.

다음은 성별,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부, 모) 및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명명척도인 성별 변인은 더미변수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우선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r=.16, p<.05$) 및 차폐($r=.13, p<.05$)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인터넷 중독($r=-.23,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

($r=.55, p<.01$) 및 인터넷 중독($r=.29,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차폐와는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차폐($r=.18, p<.01$) 및 인터넷 중독($r=.1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차폐는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23, p<.01$)를 나타냈다.

한편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성별, 그리고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다. 1단계로 투입된 성별은 인터넷 중독을 5%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2

표 3. 성별, 부정적 양육태도, 차폐, 인터넷 중독의 상관분석 (n=272)

변인	성별	부정적 양육태도-부	부정적 양육태도-모	차폐	인터넷 중독
성별	1	.00	.16*	.13*	-.23**
부정적 양육태도-부		1	.55**	.11	.29**
부정적 양육태도-모			1	.18**	.19**
차폐				1	.23**
인터넷 중독					1

* $p<.05$, ** $p<.01$.

표 4. 성별, 부의 양육태도, 차폐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Model	예언변인	β	R	R ²	ΔR^2	F
1	성별	-.23***	.23	.05	.05	14.67***
2	성별	-.23***	.37	.14	.08	20.60***
	부-양육태도	.29***				
3	성별	-.26***	.43	.19	.05	19.85***
	부-양육태도	.26***				
	차폐	.23***				

*** $p<.001$.

단계에 투입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인터넷 중독을 14%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고유하게 설명하는 변량은 8%였다. 3단계로 투입된 차폐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은 5%였고 전체 변량의 19%를 설명하였다.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차폐경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변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성별, 그리고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로 투입된 성별은 인터넷 중독을 6%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2단계에 투입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인터넷 중독을 11%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고유하게 설명하는 변량은 5%였다. 3단계로 투입된 차폐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은 5%였고 전체 변량의 16%를 설명하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차폐경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변량은 증가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및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고등학생 272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척도, 차폐 척도 및 인터넷 중독 척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는 기존에 선행된 우리나라 연구결과들에서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있거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양육태도인 거부적, 적대적 양육태도(김연화 등 2005; 이계원, 2001; 장원재, 2003)와 규제 혹은 통제적 양육태도(김영혜 등, 2007; 박현숙 등, 2007; 장원재, 2003) 등이 하위 요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척도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이민식(1997)이 선별 제작한 것으로 이 척도에는 Davies와 Cummings(1994)가 구분한 세 가지 부정적 양육태도 즉, 첫째 자녀에게 공격적이고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적대적 태도, 둘째, 거부 및 무관심, 셋째, 자녀가 부모의 심리적 요구에 응하도록 부담을 주는 심리적 통제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차폐 척도(손재민, 2005)는 내적 자기와

표 5. 성별, 모의 양육태도, 차폐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Model	예언변인	β	R	R ²	ΔR^2	F
1	성별	-.24***	.24	.06	.06	15.94***
2	성별	-.27***	.33	.11	.05	16.06***
	모-양육태도	.23***				
3	성별	-.30***	.40	.16	.05	16.52***
	모-양육태도	.19***				
	차폐	.23***				

*** $p < .001$.

불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정도를 측정하였고 인터넷 중독 척도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K-척도 자가진단 문항(김병구 등, 2008)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선행 연구들과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인터넷 중독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정혜(2005) 및 전요섭 등(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각된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버지 및 어머니 양육태도가 각각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의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이계원, 2001; 장윤옥 등, 2005; 전요섭 등, 2008)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인터넷 중독과 상관관계가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개인이 원치 않는 부정적인 외적 단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자기 반응에 대한 행동인 차폐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경험되는 우울, 분노, 외로움, 슬픔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현실속의 대상에게 드러내고 풀어가기 보다는 이러한 정서 경험 자체를 회피하고 차단하는 경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차폐는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차폐 행동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차폐 행동은 증가하고 이러한 증가가 인터

넷 중독 수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각된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에서 각각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지각된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변량보다 차폐가 투입되었을 때의 전체 변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성별과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변량은 14%였으나 차폐가 포함된 단계에서의 전체 설명량은 19%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역시 차폐와 함께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는 변량은 16%로 나타나 차폐 행동이 인터넷 중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서론에서 살펴보았던 권정혜(2005)의 연구에서는 자기도피가 게임중독을 10.6%를 설명하였고 자기도피와 부모감독을 함께 넣었을 때 전체 게임중독을 설명한 변량은 11.2%, 자기도피, 부모감독, 자기불일치가 게임중독을 설명한 변량은 11.9%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도피 성향과 부정적 양육태도(권정혜의 연구에서는 '적대 부모' 변인으로 설정됨)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른 차폐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자기도피 성향과 차폐가 중독행동과 관련하여 유사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서표현성의 한 측면인 차폐와 중독 행동 간 관련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지각한 아동은 분노를 느끼고 활동성이 저하되며 불편감과 사회적 위축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Cohn & Campbell, 1992), 부모의 적대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강한 위협이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정서적 안정을 얻지

못하고 분노와 슬픔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빠지게 되며(Davies & Cummings, 1994), 이러한 경우 경험되는 심리적인 불안정감과 외로움 등에서 회피하고 도피하기 위해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몰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던 선행 연구들(박현숙 등, 2007; 장재홍, 2004)의 해석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부정적인 양육태도 및 차폐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차단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차폐 행동은 양육태도와 결합하여 인터넷 중독 경향을 더 많이 설명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자들은 경계심이 많고 타인에게 자신을 잘 개방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송원영, 1998; Young & Rodgers, 1998)고 하였지만, 이러한 중독자들의 특성은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하는 외적 단서들에 대한 특징적인 회피 행동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Frijda(1993)와 Lazarus(1991)는 정서는 이것을 발생시키는 특정 대상이 있고 이러한 대상과 관련된 행동 반응 경향성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앞서 보았던 한국정보화문화원의 조사 결과(2008, 2009)를 연결지어 보면, 가장 심각한 인터넷 중독 상태로 나타난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상담을 받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은 이들이 불만족스럽고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나 부적 정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활동 또는 중독 상담을 받으려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불편한 정서를 차단하고 실제 자기 경험과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 지 염려스럽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 중독 상담 장면에서는 청소년들

이 현재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러한 정서를 발생시킨 특정 대상 및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자신이 선택한 행동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지 않으려는 차단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러한 차단 혹은 차폐 행동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기술하면서 이러한 양육태도로 인해 경험되는 부정적인 정서(분노, 슬픔, 외로움, 수치심 등)를 회피하기 위해 중독에 빠질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차폐 변인을 투입하고, 차폐가 독립변인이 부정적 양육태도와 함께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것은 선행 사건(부정적 양육태도)이 부적응적 결과(인터넷 중독)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선행 사건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평가가 더해져 부적응적 결과를 낳는다는 인지적 접근으로 인터넷 중독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회피하려 했던 부정적인 정서를 발생시킨 어떤 대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느낌을 차단하고 현실속의 자기와 인터넷 상의 자기 불일치하게 지낼수록 인터넷 중독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최근 발표된 인터넷 중독 개입 프로그램(여정숙, 이수연, 2007)을 보면 각 회기별로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검토하고 인터넷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인관계 특성을 비교하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결과인 차폐와 인터넷 중독간의 관련성 측면을 인터넷 중독 상담의 초기에 다룸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언제 어떤 대상으로부터 불쾌한 혹은 유쾌한 감정이나 생각이 촉발되는 지를 탐색해 보도록 하고 이것이 인터넷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건에 대한 해석 및 평가가 부적응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가지 독립변인들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는 매개 및 조절 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외적 단서들로 인한 원치 않는 느낌이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 즉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자기주장성 및 자아탄력성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차폐 변인으로만 설명하려고 하였다. 또한 양육태도와 차폐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가 없고 이 두 변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없다는 점과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차폐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 등 차폐 변인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차폐와 인터넷 중독 혹은 부정적 정서와 차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을 함께 넣어 모형 검증을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년별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1학년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의 학년

별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어진 연구들을 충분히 찾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고 차후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년 변화와 인터넷 중독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정혜 (2005).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시간
에 따른 변화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67-
280.
- 김경신, 김진희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자녀 관계변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학회지, 6(1), 15-25.
- 김병구, 김동일, 김동민, 고영삼, 엄나래 (2008).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 고도화연
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구보고 07-13.
- 김성경 (2008). 고등학생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5(1), 381-406.
- 김연화, 정영숙 (200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또래관계와 아동의 인터넷 중독 경향.
대한가정학회지, 43(1), 103-114.
- 김영혜, 손현미, 양영옥, 조영란, 이내영(2007).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아동이 지
각한 부모-자녀 애착과의 관계. 아동간호
학회지, 13(4), 383-389.
- 김진희, 김경신 (2006).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
모형분석. 청소년학연구, 13(1), 235-268.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한국형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 네이버 국어사전 (2010). <http://krdic.naver.com/>

- detail.nhn.
- 박현숙, 권윤희, 박경민 (2007).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7(5), 754-761.
- 서승연, 이영호 (2007).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몰두 성향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2), 391-405.
- 손재민 (2005). 정서조절 방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인지적 재해석과 정서표현 억제인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원영 (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정숙, 이수연 (2007). 인터넷 중독 개입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2), 27-48.
- 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460.
- 윤수연, 김은정 (2005). 인터넷 게임중독 및 게임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게임특성, 게임 이용동기, 심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20-421.
- 윤영화, 이홍재, 김상희, 김현택 (1997). 시각적 공간과제 수행시 일어나는 사건관련 뇌전위에 대해 향과 소음차폐기가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생물 및 생리*, 9(1), 71-82.
- 이경민, 장성숙 (2004). 인터넷 중독자의 자기개념과 자기도피 및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43-756.
- 이계원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귀, 김혜영, 최해연 (2008). 정서 인식 및 표현 양식에 따른 하위집단과 심리적 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63-77.
- 이민식 (1997).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수진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문제행동성향과의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검증을 이용한 성별간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15(3), 237-257.
- 이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장원재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소외감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윤옥, 정서린 (2005).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따른 인적자원의 차이. *중등교육연구*, 53, 531-554.
- 장재홍 (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요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1), 113-128.
- 전요섭, 김수경, 박은정 (2008). 아버지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차이. *청소년학연구*, 15(2), 257-275.
- 정정숙, 권정혜 (2003). 자기도피 성향과 대인

- 관계가 중독적 게임사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자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호, 101-102.
- 한문기 (2005).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서정보에 따른 주의편향 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 실험, 17(2), 111-130.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8). 2007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2008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2009 국가정보화백서.
- 홍세희, 박민석,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129-143.
- Baron, R. A. (1994). The physical environment work settings: Effects on task Performanc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job satisfaction. In B. M. Staw & L.L.Cummings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vol, 16, p 146). Greenwich, CT: JAI Press.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s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umeister, R. F. (1991). *Escap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Cohn, J. F., & Campbell, S. B. (1992).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on infant affect regulation. In D. Cicchetti & S.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bology: Vol 4.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depression*.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Frijda, N. H. (1993). Mood, emotion episodes, and emo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 (Ed.), *Handbook of emotions* (pp.381-403). New York: Guildford Press.
- Gross, J. J., & John, O. P. (1998). Mapping the domain of expressivity: Multi-method evidence for a hierarchic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70-191.
- Grych, J. H.,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ren Development*, 63, 558-572.
- Hudson, W. W. (1982). *The clinical measurement package: A field manual*. Chicago: Dorsey Press.
- Larson, D. G., & Chastain, R. L. (1990). Self-concealmen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health implic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439-455.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Lopez, F. G., & Gormely, B.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55-364.
- Mathews, A., & MacLeod, C. (2002). Induced processing biases have causal effects on anxiety. *Cognition and Emotion*, 16, 331-354.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heldon, K. M., Ryan, R. M., Rawsthorne, L. J., & Ilardi, B. (1997). Trait self and true self: Cross-role variation in the Big-Five personality traits and its relations with psychological authentic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380-1393.
-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51-361.
- Wegner, D. M., & Erber, R. (1992). The hyperaccessibility of suppress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903-912.
- Young, K. S. (1997). *Internet addictions: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World Wide Web. <http://netaddiction.com/articles/symptoms.html>.
- Young, K. S., & Rodgers, R. C. (1998). Internet addiction and its personality correl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70th annual meeting of the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MA.*
- 원고접수일 : 2010. 03.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0. 05. 19
게재결정일 : 2010. 08. 13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Masking on Internet Addiction

Kim Younghy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negative parental attitude and masking to internet addiction for highschool-aged adolescents. After surveying 272 adolescents at a highschool in Gyeonggi-do region,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irst, the level of Internet addic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masking and perceived negative parental attitude was significant when the students were asked about their mothers. Third, negative parental attitude of fathers accounted for 14% of internet addiction in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o quantify the effect of parental attitude and masking on internet addiction. Negative parental attitude of fathers accounted for 19% of the whole variance when masking was considered. Negative parental attitude of mothers accounted for 11% of internet addiction-it could account for 16% of it when masking was taken into account.

Key words: negative parental attitude, masking, internet addiction